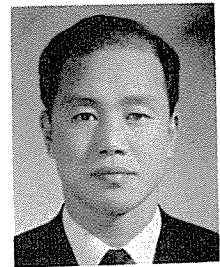




現代 教会 建築 小考

金正澈

(正林建築事務所)



現代教會의 特徵

I. 禮拜概念

禮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모여 儀式을 行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예배는 聖職者와 信徒가 区分되고 信徒 역시 個人的인 헌신도가 큰 聖職者와 平信徒 사이의 差別意識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聖職者나 長老들은 平信徒가 앉는 곳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거나 区分되어 座席이 마련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는, 다같이 함께 모여 神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罪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용서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洗禮를 받으며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근본개념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다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평면도 이 뜻에 맞도록 長老席이나 찬양대의 特別席은 마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예배는 牧師나 聖職者 中心에서 平信徒 中心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개념이 바뀌어 진 것이다.

예배는 누구나 다 같이 神의 백성이 된 立場에서 奉仕活動을 하는 것으로, 充滿된 神의 사랑의 衝動으로 信徒가 서로 화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和會는 教會를 中心으로 人類社會에 널리 傳播되어야 한다. 和會는 미움과 시기와 不信을 없애고 CHRIST의 行動과 말씀이 根本이 되며 教會가 存在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예배를 통하여 神과 人間이 和會하고 人間間的 화해, 社會의 種族 및 빈부간의 화해, 教派간의 화해 등 神이 終局的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目標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복음인 것이다.

화해의 복음은 멀리 인류사회의 끝까지 전파되도록 먼저 教會를 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I. 禮拜儀式

예배의식은 敎인들이 神을 찬양하기 爲하여 공동으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一致된 節次에 依하여 禮拜할 때 그 예배 形式을 禮拜儀式 이라 한다.

이러한 통일된 儀式은 CATHOLIC에서는, 神이 臨在하는 祭壇 앞에서 聖職者가 祭司를 行할 때 信徒들도 같이 따라 行함으로서 이루어졌으며, 改革教會諸教派에서는 말씀을 中心으로, 神의 백성이 되도록 고백의 기도로 구원받고 찬양의 노래로 경배하는 儀式을 取해 왔다.

이러한 儀式은 오늘날에 와서 점차 祭壇과 說教台가 다 같이 重要함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洗禮盤과 더불어 禮拜의 세 中心이 되어지고 있다.

祭壇은 神의 在를 뜻하고 있으며 CHRIST의 만찬의 食卓이라는 概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神이 臨在하신 제단을 向하여 祭物을 바치고 고백과

謝罪의 기도를 드리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이 祭壇은 되도록이면 會衆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높은 곳에 있어 會衆으로부터 감사와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儀式은 新敎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반대로 舊敎에서는 說敎도 重要視하는 儀式이 取해 지기 始作하였다. 說敎台는 神의 말씀을 낭독하고 神의 백성이 되기 爲한 마음가짐과 取해야 할 行動에 對한 說敎를 듣고 神의 축복을 받아 능력을 얻는 곳이다. 그러므로 說敎台는 禮拜者들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 位置해야 하며, 여러 改革敎에서 해 온 것과 같이 꼭 강단의 中心에 位置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即, 視覺的, 聽覺的 機能이 滿足되도록 配置하는 것이 더욱 重要시하게 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 13 : 16).

예배의식의 세 중심 중 세례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능력을 傳達받는 곳이며 세례를 받으므로 하나님의 한 家族으로 입적 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WORD)과 성찬 및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과 교통하신다는 것을 개혁의 根本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洗禮盤도 제단 및 설교대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祝福을 받는 重要한 要素이므로 점차 改革교회에서도 無視 또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하게 되었다.

III. 多目的인 敎會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精神을 널리 이 世上에 알리는 곳이다. 이러한 敎會는 이웃 및 地域 社會에 開放된 곳이라야 하며 이웃을 爲하여 奉仕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경배와 奉仕精神을 一般에게 開放될 수 있는 곳은 分離되어야 하며, 禮拜儀式을 進行하는 곳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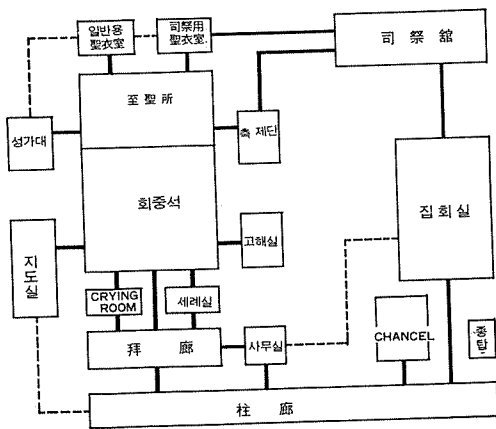
除外한 其他空間은 되도록 모든 행사 및 集會가 可能한 多目的的인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精神은 特定敎人들의 完全化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며, 貧·老 등 의지할 곳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라를 퍼서 罪로부터 救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뜻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神에 奉仕를 하려는 敎인들의 여러 活動을 可能케 해야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自由로이 接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들의 利用에 積極 活用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敎會의 周圍를 높은 담으로 둘러 막거나 大門을 굳게 닫아 둔 敎회를 볼 수 있다. 이러한 敎會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事業을 잘 못 理解했거나, 敎회를 거룩하게 維持 한다는 데에만 골몰한 잘못된 생각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敎人이나 부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곳이든 즐겨 가시며 罪지은 사람들에게도 꼭 같은 사랑을 퍼신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精神에 맞게 敎會가 計劃되게끔 建築 委員나 건축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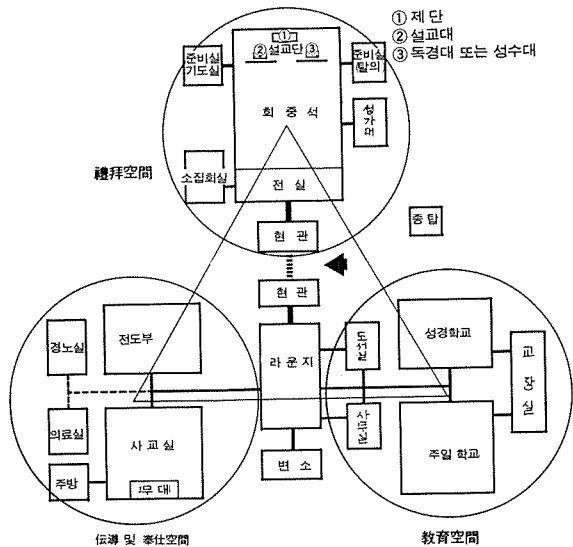
敎會 建築의 內容

I. 敎會의 機能

천 주 교 기능도



신 교 기능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敎회가 있으며 도시, 농촌 할 것없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 모든 敎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며 敎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世에 보내시어 人間을 救援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곳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開放되어진 건물이다.

예배를 위한 공간은 거룩하고 장엄해야 하며 일반인에 대하여는 친근감이 있고 우애와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敎회는 크게 나누어 儀式을 존중하는 旧敎와 儀式보다 목사의 說敎에 중점을 두는 新敎(改革敎諸派)의 敎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두 敎회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통일된 敎회였으나 16세기 宗教改革運動 이후 新敎敎會(Protestant Church)로 分離 獨立되어 예배의 儀式面이나 布敎의 分布를 각기 달리하여 왔다.

敎회는 會衆이 주일날 또는 기타 集會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식의 場所일 뿐만 아니라 傳道事業과 敎인과 그 가족 또는 地域社會의 敎育과 봉사사업도 행하는 곳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① 예배를 위한 空間

이곳은 하나님이 臨在하시며 하나님의 몸되는 곳

중에서도 머리되시는 곳이므로 교회건축을 대표하는 中心部인 것이다. 會衆이 공동으로 신을 찬양하고 예배의식을 올리는 곳이므로 祭壇과 찬양석과 會衆席으로 구성된 부분을 말하며 기도회, 부흥회, 혼례식등의 집회에도 사용되는 空間이다.

② 教育을 위한 空間

예배를 전후하여, 또는 平日에도 성인이나 어린 이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와 유치원 및 기타 교육을 위한 교실, 또는 사립의 장소로서 대소로 구분 사용할 수 있는 多目的 空間이다.

③ 伝道 및 奉仕를 위한 空間

교회의 사업은 폭넓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行蹟을 널리 알려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고루 안겨 주기 위해 강연회, 음악회 등을 통해 伝導를 하는 공간과, 어렵고 병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쓰다듬어 주며 항상 인근 주민에게 봉사하는 目的으로 쓰이는 공간이다.

④ 기타 부속공간

예배, 교육, 전도봉사사업을 뒷받침하는 牧師, 또는 司祭室, 事務室, 委員會室, 會議室 및 식당, 주방, 세면소 등 부수된 여러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⑤ 教職者 住居

聖職者의 住居는 教會와는 별도 垞地에 분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관리인을 위한 주택은 교회 건물에 접해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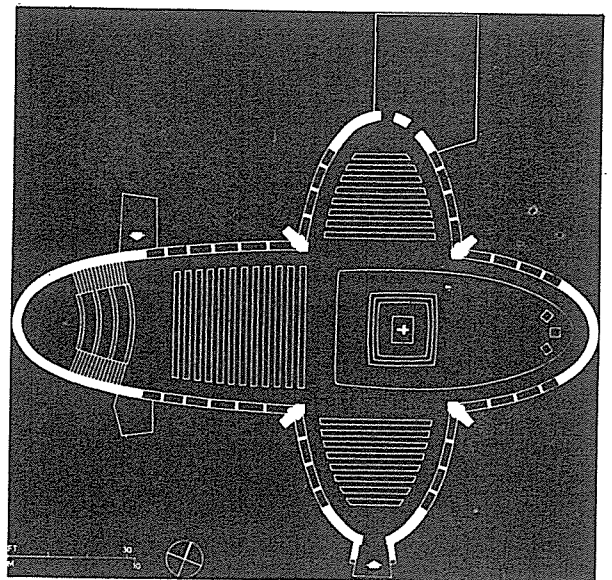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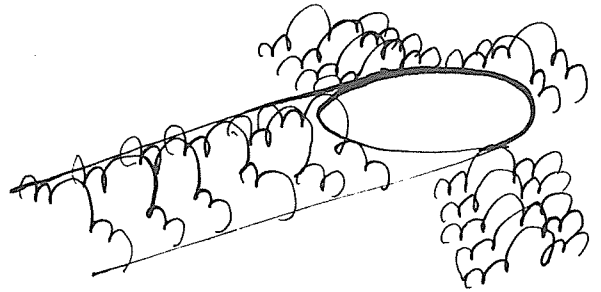
II. 禮拜를 爲한 空間

우리는 人間을 創造한 하나님을 공경할 의무가 있으며 肉身과 靈魂으로 된 人間은 救援을 받아야 하므로 教會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救援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啓示와 眞理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한 공간은, 하나님이 臨在하시며, 우리의 罪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獨生者 예수 그리스도를 기

억하게 하는 儀式的 場所인 祭壇과, 啓示와 眞理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說教壇, 또 이를 경청하여 의식에 다 같이 참여하는 會衆席이 있어야 한다.

儀式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므로 기록해야 할 것이며, 모인 會衆도 世俗의인 肉身을 잊고 정신적 靈魂的인간이 參席한 엄숙한 분위기에 達할 수 있는 内部空間의 處理가 要救된다.

교회건축의 巨匠 루돌프 슈발츠(Rudolf Schwarz)는 禮拜儀式을 위한 空間을 祭壇이라는 하나님의 極과 均質의 單純한 空間을 否定하고 이곳에 모인 會衆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空間의 極的인 존재로 意識할 수 있도록 Frankfurt에 있는 성 미가엘교회(St. Michael Church)를 설계하였다.



① 祭壇 또는 성찬대

禮拜空間의 중심은 하나님이 臨在하시는 祭壇이다.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제단이므로 모든 敎人이 예배에 參與할 때부터 끝 날 때까지 어떤 위치에서나 잘 바라보이며 禮拜의식이 進行되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 視線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 位置는 會衆席의 중앙에 놓임이 바람직하나 平面形態에 따라 敎인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직접 통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단은 주님이 臨在하시므로 주님 가족이 영양을 취하는 주님의 table 이다.

이러한 성단을 신도들에게 더 가까이 옮기고 따라서 사람들이 더욱 성단 근처에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성단이 건물 중앙에 위치하도록 円形의 平面을 잡거나 矩形의 平面에서는 짧은 벽면에 제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의

의 긴 쪽에 성단을 두고 의자를 주위에 놓으므로 성단과 더욱 가까이 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러 보는 存在이므로 제단은 會衆席보다 높게 자리함이 합당하다. 그 높이는 會衆席의 後部에서도 잘 바라 보이도록 건축적으로 解決하되 중앙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몇 단의 계단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계단의 수는 3段으로 했을 때 3위1체 또는 사랑, 믿음, 소망을 뜻하므로 강단을 3段, 聖所를 3段, 그 위에 祭壇에 배의 중심을 위하여 다시 한 段 높이는 예는 자주 볼 수가 있다. 新教 諸敎會에서 강단 중앙에 설교대를 놓았을 때는 예배의 중심의 상징적 단이 없이 십자가만 배치하거나 성찬대를 설교대 앞에 놓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나타낸다. 어떤 교회는 제단을 성찬상으로 대신하고 그 위에 포도주와 떡을 담은 食器를 簡潔하게 배치하여 성찬의 은혜를 나타낸 예도 있다.

이 성찬대는 초대교인들이 제단 대신에 성찬대를 聖所에 두고자 한 데서부터 연유된다. 성단이나 성찬대는 예배의 한 수단에 불과하며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단이 있는 곳을 「성소」라 하며 이 성소는 유대인의 神殿構造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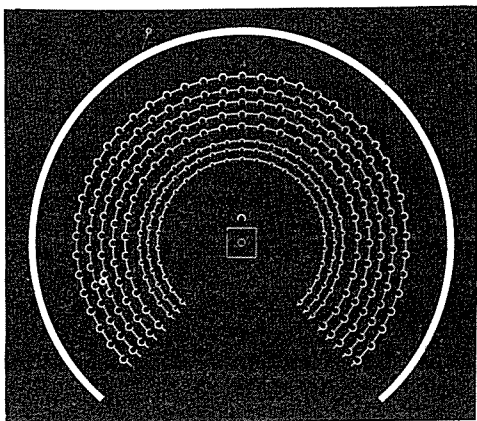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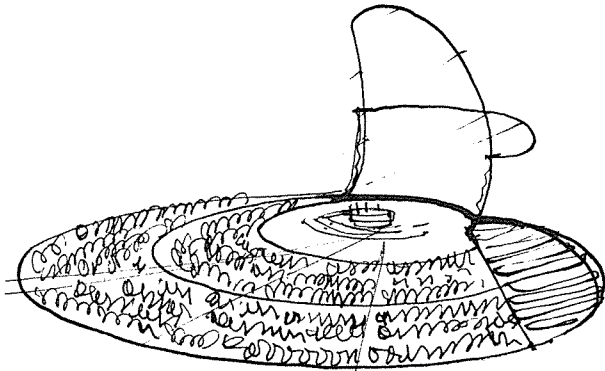
旧敎에서는 聖所를 中心으로 계획되며 이 곳에서 祭壇(Altar)과 聖具台(Credence Table), 司祭席(Priest Tery)과 聖書朗誦台(Ambo) 및 기타 十字架 촛대등의 儀式器具가 배치되며 聖具室은 至誠所(Sanctuary) 뒤에 있는 경우와 좌측 또는 우측에 두는 경우가 있으며 司祭의 입장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說敎台 및 讀經台

구교에서는 儀式을 重要視한 祭司를 행하므로 聖所를 중심하여 敎會 計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설교대는 敎會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놓이게 되며 “미사”의 성찬만 강조하게 된다.

前記한 바 있는 聖미가엘교회는 놀라운 美學的 순수성으로 설계되었고 제단은 교회 안에 있는 무엇보다도 突出하여 필적할 수 없는 焦點을 이루고 있으나 예배정전 안에 설교대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新敎諸派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개혁되어야 한다는 改革論에 따라 우상숭배의 유혹이 되기 쉬운 모든 요소를 除去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福音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新教諸派의 교회는 말씀을 重要視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건축도 말씀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설교대와 讀經台는 다 같이 福音에 관한 것이며 이 福音台는 聖所와 더불어 하나로 취급하여 흔히 講壇이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세례 및 성찬을 통해 교통하신다”는 개혁파의 주장은 옳은 것이며 이것은 예배의 세 중심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 오셨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마태 15:10) 하셨다. 그러므로 說教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위치와 높이로서 음향학적인 위치와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설교대는 말씀의 대이므로 되도록이면 단순 간결하게 design 하고, 퍼 놓은 복음서를 볼 수 있도록 한층 높게 장식하고 설교의 말씀과 強調하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더욱 은혜가 되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말씀을 더욱 重要視하는 교회에서는 성소 제일 깊은 중앙에 몇 단 높게 설교대를 두어 會衆席 바닥을 調節함이 없이 시각적으로 잘 해결했으며 說教台의 말씀의 意義를 한층 더 강조하며 성령의 상징으로 표시하였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눈에 띄게 설교대 위에 놓는 경우와 제단을 중심으로 설교대의 相對의 위치에 別途로 簡潔하게 설계된 대 위에 놓여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경대를 별도로 놓았을 경우는 말씀의 봉독과 축도를 이곳에서 行한다. 말씀과 福音書는 일치되어야 하므로 성서는 설교대의 눈에 띄는 곳에 備置케 하고 독경대 위치에는 세례반이 놓여진 예가 많다.

이와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진행은 개혁파와 신교에서 중히 여기므로 신교제파의 설교대의 형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③ 新教諸派의 說教壇

a. 會衆席보다 한 단 높게 하고 中央正面에 說教台를 配置.

b. 설교단 중앙 깊은 곳에 제단(ALTAR)을 두고 (제단에는 十字架와 聖書を 配置) 說教台와 聖書朗誦台를 좌우측에 配置.

c. 說教壇을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2 단으로 하고 낮은 단 주위에 성찬간(聖餐欄間)을 設置(특히 Methodist Church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음).

d. 설교단의 후면 또는 側面에 세례조(洗禮槽: Baptistry)를 배치(주로 Baptist Church에서 적용).

新教에서는 禮拜가 시작되기 전, 목사 및 장로, 사회자 등이 그 날의 儀式을 준비하고 기도드리는 준비실을 설교대 후면 또는 좌우양측에 마련한다. 양측에 준비실을 마련했을 때는 이 중 하나를 성가대의 衣服室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최근 어떤 교회는 구교의 의식에서 司祭가 입장하듯이 목사, 장로, 성가대들이 열을 짓고 會衆席을 통과하여 자리에 앉으므로 예배의 의식을 좀 더 숙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도 있다.

④ 會衆席, 一般信徒席

교회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며 이 메시지를 받고자 사람들은 모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에서 그의 진실한 추종자인 회중과 아주 가까이 교통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머리된 제단과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會衆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교인들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를 찬양하고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의식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가족은 말씀과 신성한 식사(성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식탁 주위에 함께 모여야 한다. 회중석의 의자는 말씀과 세례 및 성찬이 차려진 성소 주위에 되도록 가까이 배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와 회중석은 교회설계의 기본이 되며 교회의 평면은 이것으로서 지배된다.

예배공간은 婚禮 및 기타 儀式도 행하므로 聖所를 향하여 중앙에 通路를 두고 양측에 신도용 長椅子를 놓게 되며 장의자는 6인석 정도가 理想的이며, 10인석을 초과하면 의자간의 간격이 넓어야 한다. 교회平面的 폭은 주로 의자배치를 먼저 검토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공간 처리 등을 생각해서 결정되어 진다. 폭이 넓으면 스판이 길어 지므로 會衆席에 기둥을 배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런 기둥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데 장애가 되며, 기둥 바깥쪽 면적 또한 회중석으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면적이 된다.

공간조형을 위하여 意識的으로 기둥을 獨立시키고 기둥 바깥 쪽 Space를 통로로 사용하거나 旧教에서는 會衆의 立席으로 또는 高해실이나 십자가의 道行으로 이용하는 예가 많다.

이것은 초기 教會의 Basilica 식 구조를 본 것이다. 會衆席의 天井은 구조적으로나 음향처리상 되도록 높여서, 하늘나라를 갈구하는 敎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듯한 空間을 느끼게 하며 개구부(開口部:窓)가 너무 많거나 크면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어지고 儀式에 集中力을 잃게 되므로, 성경과 찬송가 등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照度를 確保할 수 있는 範圍에서 억제하여 壁體가 儀式을 엄숙케 하고 숙연한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會衆席 椅子的 열은 20열 이내가 이상적이며, 20열을 넘는 座席에서는 평면형과 벽 및 천정의 재료와 모양에 따라서 說敎壇에서의 말씀이 불분명하게 들리고, 補音장치를 사용하여도 직접음과 反射音의 時差가 생겨 잘 들리지 않는 수가 있다. 會衆席의 바닥은 垂平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祭壇은 60~70cm 높이고, 說敎台는 다시 몇단의 층계를 주어 視線問題를 해결해 주거나, 會衆席의 바닥을 뒤로 갈수록 높혀 경사로 해주는 방법이 있으나 평평한 바닥보다 예배의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傾斜를 주는 경우는 맨 뒷 부분에서 信從가 섰을 때 視線의 높이가 설교자의 視線높이보다 낮게 해야 한다.

⑤ 聖歌隊席(Choir Loft)

찬양대는 인원수가 얼마이든지간에, 예배의 절차를 통하여 회중들과 더불어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Melody와 찬양으로서 응답하는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한다.

찬양대의 역할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므로, 말씀과 聖禮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가대가 聖所에 위치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없지 않다. 음향공학상 음원(音源)을 몇곳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성가대는 會衆속에 있어서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응답을 인도하며 같이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수도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 노래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찬양대의 위치는 회중들의 正面과 後面으로 하여 화답

하는 찬양을 할 수도 있다고 회중의 찬송을 거들어 주는 奉仕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삼을 때에는 그 기능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 찬양대의 위치는 會衆席의 일부로서 제단에 가까운 곳이 적합하며 잘 調和된 和音이 회중석 어느 곳이나 전달되어 한 마음과 한音が 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찬양대원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성소에서 행하는 모든 말씀과 주님의 제단과 성찬의 거룩함에 영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성소를 正面으로 向하여 앉을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찬양하는 時間外는 會衆과 시선을 교환하지 않도록 의자 배치 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旧教에서는 회중석 뒤 廻廊部에 두고 예배공간에 聖曲이 충만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儀式의 절차를 전면에 걸쳐 이끄는 역할을 담당케 한다. 신교제파에서는 예배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信從席과 같은 level로서 설교단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성가는 모두가 그 곡이 아름다우며 오르간의 音律과 和音된 멜로디는 예배의식을 보다 感動的으로 하나님의 임재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같이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더욱 영적으로引導케 한다.

찬양대석은 段差를 주어 지휘가 용이케 하고 음이 맑게 들리도록 그 위치와 찬양대석 주위의 벽, 천정 재료 선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Pipe Organ은 찬양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和答하는 한 手段이며, 그 自体가 아름다운 音律과 感動的인 여음을 예배공간내에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Pipe의 배열은 훌륭한 造形的要素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공간내에 하나님의 제단을 능가하는 어떤 물체나 상징을 둘 수 없음에도 Pipe Organ에 배속되어 제단의 일부에 장식되거나 存在價值를 돋보이게 한 例를 허다히 볼 수 있다. 이러한 Pipe Organ의 배치는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오르간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信仰의 구심점에서 벗어난 위치에 Pipe Organ이 지닌 感興의 선율과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음향적으로는 Organ이 會衆의 뒷 부분 약간 높은 곳에 있을 때 예배의식을 더욱 效果的으로 도울 수 있다.

Pipe Organ의 設計는, 전문가와 설계 初期부터

상의하여 이상 말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그 價値를 나타내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큰 교회에서는 석가대 연습실과 석가대를 위한 衣服室을 강당 주위에 배치한다.

⑥ 禮拜前室(Narthex)

Narthex란 회랑어로 「막대기」란 뜻이며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만찬 예식이 행해지는 곳에 들어 가지 못하도록 그곳을 기둥(막대기)으로 막아 두었다고 하며 기둥사이로 들어다 본다고 하는 데서 이곳을 Narthex라고 칭하게 되었다. 오늘에 와서는 예배 공간 앞에 前室을 두어 밖에서 들어 오는 비바람을 막고 신도들에게 배석으로 들어가기 전 옷깃을 여미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곳으로 그 뜻은 점점 변해가고 있다.

Narthex는 예배의식이 행해지는 곳을 좀더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을 막는 前室이며 이곳은 母子를 위한 예배공간으로도 이용된다. 이 前室은 또한 Lobby의 性格을 띤 空間으로도 計劃되며 하나님의 한 家族된 教友들이 하나님의 몸된 곳에서 서로 사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교인들이 일시에 나오는 곳이므로 그 넓이는, 會衆席 넓이에 相応한 크기로서 붐비지 않고 서로 인사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最小限의 面積을確保하고 동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屋外로 나가는 出入口을 밖으로 열리도록 배치해야 한다.

旧教에서는 이곳을 十字架의 道行을 겸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신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儀式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곳에는 教會의 여러가지 소식과 週報를 나누어 주며 교인들을 예배 좌석으로 안내하며 信從의 카드 상자 등을 놓을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信從들의 사귄을 위하여는 넓을수록 좋으며 늦게 예배에 참석하는 教인들이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게 대기하는 장소이므로, 유리로 예배공간과 區劃하여 두면 예배자가 넘칠 때 Speaker를 통하여 예배를 볼 수 있는 연장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기타 諸室

a. 기도실(Chapel)

Chapel을 따로 마련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으나 큰 교회에서는 예배정전(예배실)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教인들이 어느 때나 하나님 殿에 나가 그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한 장소로 마련하며 하나님과 對話하는 空間으로 사용된다.

内部는, 他入을 의식치 않고 하나님과 단 둘만의 장소가 되도록 單純하게 造形하고 照度도 극히 어둡게 하며 누구나 自由로 사용할 수 있도록 開放的인 장소와 位置를 선택해야 된다.

旧教에서는 Chapel을 別途로 마련치 않고 內陳을 開放하여 신도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apel은 個人的, 기도실일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올릴 수 있으며 가족과 가까운 분들만이 모이는 장례식도 이곳에서 거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곳은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되며 成人이나 主日學校, Group의 教育的인 공간으로도 利用되는 一種의 Auditorium의 기능도 가져야 하므로, 計劃時는 위의 여러 목적에 부응될 수 있는 공간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준비실등 부속된 작은 방이 있으면 더욱 여러가지 目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b. 고해실 Confessional Booth

Catholic 教派에서는 信從가 司祭(神父)에게 自己의 罪를 고하여 司祭로부터 神의 가르침과 지혜를 받는 小室을 말한다.

이 고해실은 聖堂에 들어가는 初入이나 會衆席 側廊壁에 配置한다.

Ⅲ. 教育을 위한 空間

교회는 훌륭한 教人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공간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教人에만 局限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적 종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交際하고 奉仕精神을 길러 信仰을 두텁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生活化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다. 교회는 예배의 의식만 올 행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는 機能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教育空

間을 爲하여 特別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教育空間은, 英國의 Robert Raikes 가 극빈 소년을 모아 宗教 教育을 實施한 것이 始初가 되어 오늘 날에는 모든 교회가 그 規模는 각각 다르지만 主日學校를 中心으로 宗教教育, 聖經學習 및 生活指導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① 主日學校

教育空間의 主軸을 이루는 機能이며 主日날 성서의 이야기를 中心으로 한 기독교 教育을 目的으로 教會內에 설치한 학교를 말하며, 禮拜空間과 区分하여 別棟의 教室群을 配置한 分散型이 主日學教의 教育을 위해서나 거룩한 예배공간을 유지하는데 합리적이다.

禮拜空間과 主日學教를 벽없는 복도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예배의 연속인 모임 또는 사경의 場所로 利用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대지가 협소하므로 前記와 같이 分離配置한 例가 적으며, 대개 예배공간 아래 地下 또는 半地下에 重層型으로 計劃한 교회가 많다.

이런 경우는 현관 및 Hall 을 別途로 하고 Hall 의 상하의 연결계단을 고려해야 한다.

教育空間의 크기는, 대학생부와 어린이의 數만 해도 교회 成人數와 비슷한 人員數가 되므로 여기에 夫婦를 中心으로 한 壯年部의 教育까지 고려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주일학교의 인원수는 교회에 여러가지 재미있는 Program 에 따라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計劃時 充分한 공간을 마련하든가 장차 증축에 처한 대지 및 구조물의 고려를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주일 학교 도 二部禮拜 및 教育을 실시하는 교회도 있다.

어린이들의 教育에 지루함이 없도록 活素를 넣어 주기 위하여 屋外空間과의 연결문제와 recreation 을 위한 놀이터와 정원을 마련함이 더 많은 어린이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일 학교는 유치원아에 해당되는 어린이로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제약이 없으므로 효과적인 教育을 위하여 연령별 또는 學制別로 구분하여 學級 당 10~20名 정도를 대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다. 그 구별은 교회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여기에 우리나라의 한 例에 일인당 소요면적을 적어본다.

主日學校

幼年部	BEGINNERS	7~9才國民學校1~3年	30 이하	2.25~2.7
初等部	PRIMARY	10~12 " 4~6年	30 "	2.25
中等部	JUNIOR	13~15 中學校	30 "	1.8
高等部	SENIOR	16~18 高 校	20 "	1.8
青年部	YOUTH	19~24 大 學	10~20人"	1.62~1.8
壯年部	ADULTS	24 以上 夫婦中心	—	1.62~1.8

주일학교는 教育을 中心으로 예배도 행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업은 일요일의 定規 禮拜時間 前後를 利用하며 各部別로 全員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단한 예배를 보고 各學年別 10名이내로 수업을 받으므로 大教室과 이것을 구분 사용할 수 있는 小教室을 區劃할 수 있도록 Flexibility 가 있는 平面을 고려해야 한다.

小教室에서는 Group 別 活動과 Discussion 을 할 수 있도록 넓이와 使用計劃을 검토하고 넓은 空間에서는 各種發表와 연극등을 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20~60cm 정도 높은 무대를 마련해 두면 크리스마스의 各種行事 音樂會 기타 教育에 유용한 P-program 을 훌륭히 遂行할 수 있다.

주일학교는 일반학교에 登교하지 않는 일요일에 利用하는 空間이므로 平日에는 幼稚園을 經營하여 기독교 教育을 어려서부터 함양시키며 어려운 教會 財政을 돕거나 밤에는 불우한 職業少年의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要素도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 教室의 各種 치수는 학생 연령별 구분에 맞는 치수를 적용 설계한다.

② 聖經學校(또는 壯年主日學校)

성경학교는 주일학교와 연령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教育의 內容에 있어서도, 初步의 基督教 教育이 重點이라기 보다는 壯年層에게 聖經의 解釋과 研究를 행하는 곳이므로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와는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聖經研究 Group 도 주일날 예배를 前後하여 행하는 教會가 많으며, 諸職들의 聖經知識 不足의 보완과 교회에 奉仕精神을 平日化하기 위하여 일

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각기 일터에 임하기 전에 모이는 Program을 실시하는 教會도 있다.

이 空間은 禮拜前後에 주일학교와 時差를 두고 모일 수 있으므로 別途의 교실을 必要로 하지 않고 대학생부 교실을 使用케 하든가 重復되지 않는 空間을 利用하면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다.

③ 伝導 및 奉仕事業을 爲한 空間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能力과 無限한 사랑에 대해 추종하는 그의 백성으로 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기 마땅하며,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교인을 만들기 위하여 참된 眞理를 깨우쳐 주길 원한다.

이런 일이 이루어 지기 위하여 예배전당과 敎育 空間들이 必要했다.

우리들은 좀 더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事業을 통찰하고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伝播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罪惡의 그늘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人間을 救援하기를 願하고 계시다.

이것이 곧 伝導와 宣敎事業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병든자를 낫게 하시고 천하고 약한 자

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奉仕精神이다. 이러한 伝導와 사회의 救濟事業은 하나님을 証據하고 온 世界가 기독교 백성으로 化하는 重要한 事業임을 알고 이에 所要되는 여러가지 支援方法을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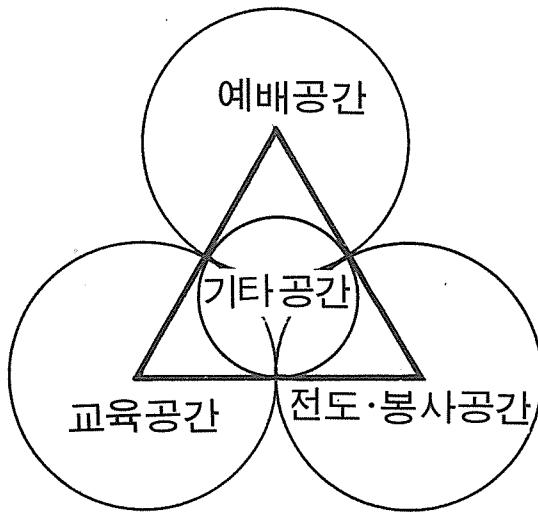
伝導事業으로는 거의 모든 教會가 女伝導會를 갖고 있으며 女伝導師로 하여금 이 모임과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教會의 規模가 크거나 熱意 있는 教會는 전국적인 伝導機構나 또는 世界的인 宣敎機構를 運營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교회에는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地域社會와 異質的이거나, 隣近과 距離가 있어서는 안된다. 敎회는 周圍와 調和를 이루고 이웃을 돕는 참사랑의 行動을 보임으로서 하나님의 伝導事業을 無言中에 이룩하여야 한다. 이웃에는 불우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다. 이런 兄弟들에게 開放된 休息室과 談笑室이 있으면 이들은 이곳을 모임장소로 하여 敎會內에서의 生活이 始作되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며, 主의 뜻에 感射하게 될 것이다.

醫療施設을 利用하여서도 같은 福音의 事業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훌륭한 醫師와 完備된 施設이 아니라도 되며, 応急加療와 간단한 安靜室로써 敎회에 籍을 둔 醫師들이 잠깐씩 정해진 時間에 돌보아 줄 수 있으면 된다.

또한 우리는 奉仕活動을 위한 空間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주일학교와 기타교육실을 夜間에 利用하여 지역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들 공간은, 주를 위하여 이미 確保되어졌으나 夜間에는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들인 것이다.

모든 空間은 하나님을 위하여 活用 되어 지도록 檢討 計劃해야 한다.



교회공간과 기능

※ 작은 교회에서는 교육과 전도·봉사 사업공간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